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OF THE GREATER NEW YORK

Newsletter

August 1, 2007

편집인: 이재임

발행인: 이화여고대뉴욕동창회

알리는 말씀

- 2007년 8월 20일 월요일 오전 11 : 초대합니다
김수자, 차기 북미주 동창회장 집에 모두 초대합니다. 오하이오 합창단 여행 결산 보고 및 지난 1년의 19회 동창회 회계 보고도 있게 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장 소 : 81 Jewett Court, Tenafly, NJ 07670
- 문의전화 : (201) 670-9352 / C (917) 834-2425

- 2007년 9월 11일 화요일 12시 - 이화 Picnic
NJ Palisades Park, Ross Dock Picnic Area에서 야유회가 있게 됩니다. 완전 Home made 건강식으로 준비되며 즐거운 오락 순서 등이 준비된 야유회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 각기 대표들은 9월 4일까지 참석 인원수를 파악, 총무 이정화 (516-384-6772)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Information (Map and Direction)은 Newsletter 끝 Page에 첨부됨.

- 9월 목요일 모임은 9월 11일(화) 12시 야유회에서 변경 모임

- NY, NJ 합창단 소식:

2007년 9월 17일부터 매주 월요일 아침 10시-12시까지 NJ 아콜라 교회에서 합창연습 시작되며 점심후에 흥겨운 춤의 시간까지 갖게 됨. 많은 동문의 참석 바람.
(문의 : 김숙자(58) 201 723-1524)

북미주 총 동창회 소식

- * 06/19/07 ~ 06/27/07 :

New York 동문회 주관으로 북미주 연합 동문 합창단은 역사적인 Cleveland 방문을 감격스럽게 마치고 왔습니다. 작년부터 차기 회장이신 김수자 ('61) 동문(합창 Coordinator)의 지휘아래 북미주 총동창회, LA 합창단과 서울 Washington DC, Cleveland 동문들의 도움받아 행사 진행.

- 121년전 이화 설립을 위한 첫 현금자의 교회, Ravenna 교회에서 예배.
- 이화 설립을 위한 무명의 특정 현금자 (L.B. Baldwin)의 묘지를 참배.
- Ohio 감리교 연회에서 우리들의 찬양은 정말 기막힌, 우주를 뒤흔들어 놓은것 같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하였음.
- 그 자리에서 서울 총 동창회가 준비해 준 감사패를 조영준 이사장님과 최정욱 전 교장 선생님이 전달함.
- 30여명 밖에 안되는 Cleveland 동창들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고 Scranton 기금을 위해 \$ 16,500을 전달 받음.

뉴욕 동창회 소식

1. 02/10/07 : 2007년 새해 구정 만찬이 많은 동문들의 참여하여 성대히 열렸음.
2. 06/19 ~ 06/27/07 : NY 합창단이 New York 동문회 주관으로 북미주 연합 동문 합창단과 함께 121년전 이화의 씨를 뿌린곳 Cleveland의 역사적인 방문을 감격스럽게 마치고 왔음

모교 이화 (서울) 소식

- * 2006년 학교 평가 교육경영 부문에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이화가 우수한 학교로 선정되었음.
- 이화 박물관이 첫돌을 맞았으며, 체육관이 준공 되었음.
- 미 연합 감리교 소속이었던 이화여고 동쪽의 2800 m2의 부지를 높은 경쟁을 물리치고 본교 재단에서 매입 했음. 앞으로 자립형 사립학교를 위한 기숙사를 그 부지에 짓게 됨.

이모 저모

- 방경자 ('53) : 뇌졸중으로 회복중이시나 아직도 재활원 병원에 입원중, 동문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 드림.
- 남일현 ('53) : 5월 25일 하느님의 부름 받고 하늘나라로 떠나심.
- '54 동기 : 6월 30일 동기 11명이 원숙자 동문 집에 모여 최정욱 전 교장 선생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음.
- 김대실 ('56) : 7월 22일 Korean Cuban에 대한 Documentary Film, "MOTHERLAND" 시사회.
- 이정자 ('60) : 7월 13일 하느님의 부름 받고 하늘나라로 떠나심
- 이귀자 ('61) : 2월 13일 개인 미술전과 7월16일 부부(조남천 장로) Group 전시회 열다
- 김수자('61) : 부군 김정식 목사님 수술(6월 22일) 완쾌 하심 감사합니다
- 박기원('62) : 4월 17일 모친 별세
- 장인숙 ('64) : 2월 16일 남편 별세
- 박임자 ('66) : PASS (Penn Asian Senior Service) 봉사, 교육기관을 몇해전부터 설립하여 언어가 통하지 않는 병든 한국, 중국, 동양 노인네들을 위해, Pennsylvania에서 젊은 한국인에게 영어와 간호사 자격 획득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5월 4일 제 1회 Annual Gala을 성대히 열음
- 김정인 ('67) : 5월 31일 기업부회에서 이화를 빛낸 이로 상을 받음
5월 22일 모친 별세
- 이명신 ('67) : 5월 31일 기업부회에서 이화를 빛낸 이로 상을 받음

* Note : 각기 소식을 본 동문회 임원들에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ew York 지부 동창회 선배님들께

이수진
(뉴욕 동문회 장학금 수여자)

안녕하세요. 저는 NY지부 동창회 선배들의 장학금을 받은 1학년 진반 이수진입니다. 저는 몽고인이고 2005년에 한국에 와서 6월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2006년 4월부터 한국학교에서 공부하게 되었는데 저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께서 우리학교를 추천해 주셔서 이화여고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한국어가 부족해서 학과 공부를 하기가 많이 어렵지만 머지않아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것이라고 믿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고생하며 일하신 돈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서 부모님께 늘 죄송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선배님들의 사랑으로 장학금을 받게되어 너무도 기쁘고 많이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도 이 소식을 들으시고 매우 감사해 하고 계십니다.

선배님들께서도 이국땅에 사시면서 모교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담아서 소중한 장학금을 후원해주신 뜻을 잘 알고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화인으로서 몽고와 한국의 국제관계에 적은 힘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겠습니다.

저는 몽고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현재 주어진 학생이라는 신분에게 열심히 공부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께서 후원하신 소중한 장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 저는 학교에서 선교합창단 멤버로 활동하고 있고, 동천교회 고등부 예배와 몽골 선교회 몽골예배 찬양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방과후에는 외국 청소년 선교회의 방과후학교에 가서 부족한 학교 공부를 배우며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저를 부르실 때 준비된 사람이 되어 있고 싶고 지금이 아니면 이렇게 배울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과 선생님들과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이화인, 하나님의 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도움을 주신 뉴욕지부동창회 선배님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 5. 28
이화여자고등학교 1학년 진반 이수진



← 미감리교대회에서 공연



→ 첫 헌금자인 Balewin 묘지 참배



← Revenna 교회에서

역사적인 Cleveland 방문을 마치고

이화여고 뉴욕 동창회 임원 일동

우리는 고귀한 뜻을 위해 모였습니다
 해 맑은 웃음과 노래로 서로의 우정을 나누고
 121년전 조선땅에 배나무를 심었던 그들에게
 우리의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배꽃이 세상 어디서엔가
 다시 피어오를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우리는 조그만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씨앗심기에 동참하신
 사랑하는 이화 동문 그리고
 합창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화 동문 연합합창단과 함께 한 꿈같은 3일 동안의 여정

김영진 선배님으로부터 중요한 모임이니 꼭 나오라는 전화가 걸려왔다. 남편이 공부를 마치고 첫 직장인 이곳으로 온지가 17년이 지났지만 사실 이화여고 동문 모임은 연락은 처음이었다. 이화동문 연합 합창단이 이화의 요람인 사적지 탐방으로 클리블랜드에서 남쪽으로 약 15마일 떨어져 있는 Ravenna라는 소도시에서 있는 제일 연합감리교회(Baldwin 여사가 소속되었던 교회)를 방문하며, 또한 미 연합 감리교 동부 오키오 연회 초청 공연차 이곳을 6월 19에서 21일까지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 가슴은 그때부터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화! 얼마 동안 잊고 지냈던 이름이었던가...

이곳에 살면서 내게 커다란 행운이 있었다면, 고 3때 같은 반 친구였던 현진이를 7년전 이곳에서 만나 같은 교회를 다니며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였던 것 이외에는,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이화의 이름은 내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져가고 있었다.

이곳 동문들은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각자 해야 할 일들을 분담하였고, 김영희 선배님의 주선으로 한인장로교회 김옥자 사모님의 지도로 조금이나마 합창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다. 요한 스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곡을 연습하면서, 혹시 내가 16세 소녀가 되어 있는 듯한 착각과 감상에 빠지기도 하면서, 그동안 잊고 지내왔던 옛 기억들이 하나 둘씩 되살아나는 듯했다. 바쁘신 가운데 이곳 동문들을 위해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주신 사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첫째날! 드디어 연합 합창단원들이 도착하는 날이 다가왔다. 이른 아침, 설레이는 마음으로 공항을 달려가서 L.A. 동문들을 기쁘게 환영함으로써 우리들의 만남이 시작되었고, 오후에는 조영준 목사님께서 도착하셨다. 때 아닌 폭풍우 속을 지나 무사히 Ravenna 교회에 도착하니, 곧이어 뉴욕과 서울 동문들이 전세 버스로 속속 도착하셨다. 옛 모습 그대로이신 최종옥 교장 선생님과 나의 동기이며 뉴욕 합창단 지휘자인 김순희를 31년 만에 만났다. 옛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어 금방 알아볼 수 있었으며, 귀엽고 발랄하게 생긴 8세 딸인 윤아와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 생각지도 않았던 우연한 만남에 너무나 반가웠고 우리들의 주름살 속에서 많은 세월이 흘러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Ravenna 교회에서의 감사 예배는 정말 감동적이었으며 자꾸만 눈물이 앞을 가려 민망할 정도였다. "120년 전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 Baldwin 여사가 앉아서 예배를 보셨겠구나" 라고 생각하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이러한 기회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었다.

재단 이사장님이신 조영준 목사님의 '마태복음의 달란트' 에 관한 설교에서 "달란트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 라는 설교 말씀이 계셨고, 예배후 여성교회 회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다과를 먹은 후에 L.A. 지휘자인 서지혜 선배님의 지도로 간단한 합창 연습이 있었다.

그 후 동문들은 Ravenna 14번 길에 있는 Evergreen Cemetery에서 Baldwin 여사와 그 일가의 묘소를 참배하였으며, 지금은 퇴색되어가고 있는 묘지의 모습이었지만 한 때는 번성했던 Baldwin



여경희
(76년 졸업, 클리블랜드 동문회)

가의 자취를 엿볼 수 있었다. 그 분을 생전에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묘소나마 방문하여 인사드리고 참배할 수 있는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화를 태어나게 한 씨앗의 근원지인 이곳 오키오에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날! 연합 합창단이 미 연합감리교 동부 오키오 연회에 초청되어 휴양 도시인 Lakeside시의 후버 오디토리움에서 공연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날이었다.

현진이와 나는 아침 10시에 출발하여 부근에 살고있는 재희 선배님 댁에 들러서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과일과 간식들을 차에 싣고 동문들이 합창연습을 하고 있는 Lakeside 연합 감리교회로 출발하였다. 재희 선배님은 크고 맛있는 수박을 고르다 수박에 발등을 찍히고 찢쪽거리며 과일을 나르다 이번에는 허리를 삐끗하시고 그 몸으로 고기 70파운드 재시고... 하여간 집이 제일 가깝다는 이유로 고생 많이 하셨다. 현진과 나는 다행히 합창 연습에 동참 할 수 있었으며, 샌드위치와 과일로 간단한 저녁을 마친 후에 예쁜 한복으로 모두 갈아 입고 연회가 열리는 후버 오디토리움으로 장소를 옮겨 마지막 연습을 했다.

곧 연회가 시작되었고 현진과 나는 무대 뒤에서 다른 선배님들과 사진도 찍고 함께 대화할 시간을 잠시 가졌다. 드디어 공연장 무대로 걸어 올라가는 순간 공연장을 꽉메는 약 2,800 여명의 관중이 눈에 들어왔다. 합창 단원들은 나비를 연상케 하는 무대복을 입은 서지혜 선배님의 지휘에 맞춰서, 모두 하나가 되어 혼신을 다해 준비한 노래들을 하나씩 불러나갔다.

한여름 밤의 아름다운 꿈처럼 울려퍼지는 합창단의 노래 소리에 매료된 연회의 온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환호와 박수로 답례 하였으며, 이화여고 교가를 3절까지 부르면서 너무나 가슴 떨리고 벅차던 감동의 순간들이었다. 목이 메이고 눈물이 앞을 가려 어떻게 노래를 끝냈는지 알 수 없는 벅찬 감격의 여운은 아마도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아름다운 순간들이었음을 고백한다.

나는 이번 합창 공연을 통해 이화여고 교가가 너무나 아름답고 의미있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 많은 관중 앞에서 그리고 미국땅 오키오에서 "만만세 만만세 우리 이화" 라고 외치며 노래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모든 동문들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감격스러웠다. 그리고, 이러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준비를 하신

김수자 선배님 이하 모든 선배님들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며, 어느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생에 단 한번만의 기회인 이 기회에 동참할 수 있게끔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앵콜송으로 합창단과 연회의 관중이 모두 하나가 되어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합창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공연을 마쳤다.

▶셋썩! 아직까지도 감격의 여운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한인 중앙장로교회에서 동문들의 간단한 예배와 공연이 있는 날이어서 우리들은 아침부터 분주하였다. 아침 일찍, 합창단의 총 지휘자인 서지혜 선배님과 딸 Sharon양 (Soloist) 그리고 목사님인 김은이 후배가 (87년 졸업, Soloist) 개인 사정으로 오후에 있는 공연을 참석치 못하고 먼저 L.A.로 떠나게 되었다. 공항에 배웅하면서 언제 또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진실로 참 아름다운 만남이었음을 감사드리면서 아쉬운 작별을 했다.

다른 동문들은 관광사의 안내로 클리블랜드 시내와 에리호수 유람선 관광을 마친 후 공연장인 한인 중앙장로교회에 도착했다. 뉴욕 지휘자인 김순희 동기의 지휘로 교민들을 모시고 예배와

공연이 있었다. 평일 오후 6시 오후에 많은 교민들이 참석을 못하여 시작 분위기는 약간 썰렁(?) 했으나 갈수록 열기가 더해지며 감동적인 공연으로 끝났다.

공연 후에 지역동문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만찬을 그날 참석하신 모든 교민들과 함께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었다.

이어서 클리블랜드 동문들이 모금한 스크랜톤 여사 장학금을 북미주 총동창회에 전달하였으며, 뉴욕의 모 선배님의 걸쭉한 입담과 장기자랑으로 오랫동안 배꼽을 쥐고 웃었고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며 클리블랜드에서의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쳤다.

짧은 3일 동안의 여정이었지만 이러한 아름다운 만남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스크랜톤여사와 받드원 여사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동문 합창단의 방문으로 거의 잊혀져 가던 이화의 기억과 이름을 다시 되새기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며, 멋진 합창을 통하여 나이와 세대를 초월한 선후배간의 만남으로 "약한 이 힘되고 어둠에 빛되자"는 아름다운 이화의 꿈과 이름을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기를 바라며 만만세 만만세 우리 이화!

이화 동문 합창단과의 여행 기행문

김옥석(53)



김옥석(53)

▶6월 19일 : 오늘은 동문 합창단이 Cleveland로 떠나는 날. 아침 5시에 집을 떠나 NJ에 모여 45명이 Bus에 올랐다. 떠나기 전날 이 행사의 총단장 김수자 동문의 남편, 김정식 목사님의 위급하시다는 전갈을 받고 우리 모두 걱정하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기도하면서 떠났다.

내가 아침에 정성껏 준비해온 아침식사를 선후배간 서로 배려하며 정답게 나눠 먹으면서, 동심으로 돌아가 소풍가는 기분으로 Bus를 타고 Ohio, Cleveland를 향해 달렸다. 도착하니 LA team이 먼저 와서 우리를 반긴다.

▶6월 20일 : Park 관광하고 2,500명이 모인 미 감리교회에서 첫 공연을 했다. 기립 박수를 받으며 감격과 감동적인 공연으로 대성황리에 끝 마쳤다.

▶6월 21일 : 식물원 박물관을 관광후 유람선을 타고 우아한 점심식사를 한 후 유나 춤솜씨로 다들 춤을 배우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 여행의 목적은 120년전 우리 이화를 세울 수 있도록 Scranton선교사를 보낸곳을 방문, 고마움을 되새기며 장학기금 마련하는데 있었다. Cleveland 동문, 가족 친지들에게 우리의 두번째 공연을 선사했다. 즉석에서 \$16,000이라는 장학기금을 모금, 이화의 대단한 저력을 실감하게 하였다.

▶6월 22일 : 김수자 단장의 남편 수술일정이 당겨져 단장은 NJ로 돌아가고, LA team도 떠나고 NY team의 일정이 이군자 회장의 기도로 시작, 모두 Bus에 몸을 싣고 Niagara 폭포를 향해 달렸다.

중식으로 Garden에서 갈비정식으로 식사한 후 안개속의 숙녀호 승선, 염소섬, 세자매섬 및 Winery도 관광하였다. 신의 위대하고 장엄한 작품,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

저녁식사 후 Sky Tower에 올라 본 펼쳐진 야경. 어찌 글로 표현할수 있으리요.

▶6월 23일 : Toronto로 향해 Bus에 몸을 싣었다. 도착 후 기네스북에서 1등을 기록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유리 Tower, Bar (Cafe), 회전식 식당 및 전망대 등이 있는 Toronto CN Tower를 관광했다. 모두가 신기하고 놀랍기만하다. 그 후 그 곳 전화장 강선희(63)씨 집에 초대되어 합창연습 하고 저녁식사도 대접 받았다. 저녁식사후 마지막 합창 공연을 Toronto 동문, 가족 친지들에게 선사하였다.

▶6월 24일 : 오늘은 Thousand Island 관광 유람선을 타고 아름다운 별장과 섬들을 보았다.

▶6월 25일 : 수많은 기적을 낳았고 7,000개 파이프의 울젠으로 유명한 몬트리오 성 요셉성당 방문과 캐나다에서 제일 오랜 도시이며 옛 모습을 간직한 퀘벡주의 수도인 퀘벡시 관광.

▶6월 26일 : Boston에 도착 동문 방문 후 Hotel에서 Wine party에서 동문회 및 동문들이 준비한 간식 봉투를 선물하는 흐뭇한 교환이 있었다.

▶6월 27일 : Harvard, MIT 대학 방문. Boston 바닷가와 세계 최초의 핵 잠수함 노틸러스호를 직접 탑승함.

우리는 9일 동안 동문 선 후배들과 함께 즐겁게 관광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사랑과 위로를 많이 받았고 함께 했던 우리 모두에게 기는길, 오는길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나의 소감을 적었습니다. 부족한 표현과 미비한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해주시를 바랍니다.

50년후에 다시 만남

이선덕(57)



이선덕(57)

이화 1957년도 졸업생들의 50주년 기념행사가 모교 창립 기념일인 5월 30일을 기준으로하여, 다시 만남을 위한 순서들이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차례로 펼쳐졌다. 미국과 서울을 연락하면서 수고해준 친구 덕분에 이번행사는 멋지게 시작되고, 끝이 났다.

우리 세대는 6.25동란이란 처절한 전쟁 때문에 부산 피난시절 하꼬방 교실을 짓기 위한 영도 해변가에서 돌맹이 쪼아 나르던 작업을 비롯하여 북진통일을 외치며 행진하던 것, 중3 이학기 서울로 복귀한 후에는 지금 의젓하게 자라잡고있는 노천극장을 건축하기 위한 벽돌 나르기 작업 등, 미국에 살고있는 우리로서는 상상할수도 없는 일들이 팀으로 채워진 학교 일과 속에 졸업을 맞게 되었다.

창립 기념일 전야인 5월 29일 저녁은 미국 Canada 등지에서 참석한 친구들과 서울 친구들 모두 170여명이 엄청 부자 남편을 둔 김영자의 초청으로 Intercontinental Hotel에서 포도주물 곁들인 많은 종류의 멋진 음식들을 들면서 서로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반세기가 지나 귀엽고 발랄하던 모습의 얼굴들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알아 볼 수 있는 많은 얼굴들과 전혀모르는 얼굴들도 있었다. 이런 일을 예상한 듯 주최한 친구들이 졸업 Album에 나온 사진들을 복사하여 각자 목에 걸게 마련하여 기억에 도움이 되었다.

많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이화 졸업생들답게 멋스럽고 당당하게 늙어가고 있는 친구들 모습에 가슴이 뻘뻘하였다. 순서 중에는 뜻밖에도 달변이 된 김이환 회장의 인사말과 서울 친구들의 열심히 준비한 Dance 공연, 뉴욕 동문 합창단을 열심히 지도한 Soprano 이순희의 독창 "Darling, I'm Grownning Old"는 우리 마음을 서글프고 아름다운 감상에 빠지게 하였다.

이화 장기에 하나인 합창은, 꾸밈없는 재치로 우리 모두에게 웃음을 주는 박경애가 맡았다. 이 외에도 많은 순서가 있었으나 솔직히 말해서 순서 진행보다 친구들 얼굴 찾아보기에 바쁜 마음이었다.

우리 동기들 중에는 사회적으로 이름난 명사를 비롯하여 학계에서 또한 자기들이 선택한 직업에서 당당하게 알려진 친구들이 여러명 있으며 매년 졸업행사에서 이들을 recognize하는 순서가 있는데 주정희동이 "이화를 빛난 동창" 상을 받게되었고 다른 학년에서도 몇명이 시상자에 선택되었다.

행사날 5월 30일 아침에는 우리가 거처하던 Hotel에서 다같이 Bus로 정동에 있는 모교까지 가게 되었다. 50년전 우리 시대와는 다르게 넓어지고 현대화한 교정과 5월이면 피어났던 등꽃나무의 여전한 자태와 향기에서 세월이 흐름의 변화와 영원함이 공존함을 느낄 수 있었다.

졸업식 순서는 우리가 건축을 위해 벽돌 나르는 작업만하고 완공됨을 보지 못하여 아쉬움이 담긴 노천극장에서 거행되었다. 졸업식장에는 현 학생들, 우리 동기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졸업생들, 상반으시는 현직 선생님들, 이화 합창을 인도하시어 친근해진 이남수 선생님, 전직 교장선생님들과 대 선배이신 이희호여사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식을 마친후 교정 잔디밭에 앉아 나누어준 Lunch Box를 들고 있는데 우리 국어 선생님이셨던 조혁구선생님께서 우리앞을 지나가시며 "더 늙지 마라" 하신다. 재치와 익살꾸러기 학생들이

가득찬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체면을 유지하시기도 힘들었을 꺼다. 우리 학년이 선물한 선생님들 별명에는 방금 얼굴을 보이신 조혁구 선생님의 조바독을 비롯하여 동담기, 마른 꼬막지, 짝가다, 6시 오분전, 썩은 대추씨 (줄여서 썩씨) 등등이 있지만 이 모두 기억에 남는 훌륭한 선생님들이었다.

별명의 근원을 알고 싶으시면 연락 주세요! 이순자 동문이 쓴 "이화졸업 50주년 기념잔치"에서 흐려진 기억을 되살려 알려드리겠습니다.

개교 기념식을 마친후 대기하고 있던 Bus에 올라 140명이 넘는 친구들이 김포공항에서 3 PM Korean Air편으로 제주도에 도착하였다.

변덕스럽다는 제주 날씨도 우리를 반기 듯 쾌청하였고 대기중인 Bus로 2박 3일로 예정된 전망 좋은 Paradise Hotel에 도착하여 일정이 시작되었다.

이 Hotel은 동창 전성결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다른 예약없이 우리들만의 전용이 되었다. 친구 성결의 배례로 조카이자 사장인 전필립씨 초청으로 마련된 첫날 저녁은 낭만적이었다.

초여름밤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하며 포도주와 곁 들인 Italy풍으로 조리된 생선요리를 먹으면서 행복하다고 느꼈다.

이 저녁을 위해 특별히 와 주신 가수 한상일씨의 흘러간 노래들은 고교시절 미군 방송 AFKN을 열심히 들으면서 따라 부르던 노래의 기억을 되살려 주어 내 마음을 포근하고 감미로운 세계로 보내주었다.

나머지 일정은 제주 특산물 홍삼 참관 (인삼, 굴), 영화 박물관, 서귀포 이중섭 미술 박물관과 아름다운 제주항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들을 Bus로 찾아 다니며 관광객이 되었으나 친구들과 같이한 Hotel에서의 아침식사(잠으로 맛 있었던 전복죽!), 여행 다니며 들렀던 음식점에서의 점심, Hotel에서의 마지막 저녁 등과 어찌 비교할수 있을까?

그러나 관광보다도 친구들과의 어울림이 더 고귀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기억에도 없어진 일로 서로 약속이나 한듯, 대화를 끊었다가 약속이나 한 듯, 다정해진 지금은 다섯 아이들의 어머니인 명숙이와의 재회도 이번 여행에서 얻은 귀한 수확이라 기억된다.

정식 일정 외에 집에서, 식당에서 미국서 온 친구들과 나를 초대하여 맛난 음식과 재 상봉의 기쁨을 준 정님, 금진, 순자, 윤자, 덕희, 불문과 동기들과 선애언니 친구로 언니이며 선배이자 이화 교장님이셨던 심치선 선생님께 고맙고 반기웠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오랜만에 방문한 고국에 발전한 모습과 날로 부유해가고 있는 농촌에 활기찬 모습도 이번 제주에서 강원도까지의 고국 방문에서 얻은 자랑스러운 기억이다.

67년 40주년 재상봉

어혜숙 (67)

이화 67년 졸업 40주년 재상봉 행사와 여행이 2007년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있었다.

우리 New York team에서는 9명이 참가하게 되었다. 해외 거주 동창생들을 위해서 동창회에서는 Somerset Palace Hotel에, 행사중에 머물수 있는 특혜를 베풀어 주었다.

5월 29일은 리즈 카튼 Hotel에서 이화 67 재상봉의 밤이 열렸다. 여러 곳에서 모여든 우리 67년 졸업생들은 친구들이 40년 동안에 어떻게 변하였을까하는 호기심과 기대로 가득 찼었다.

여기저기서 반가운 환호성으로 서로의 이름표를 확인하며, 40년전의 모습을 그려보며 그 모습을 찾으려고 애쓰면서 이리저리 살펴보는 만남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40년전의 소녀들의 놀랍고 반가운 회포의 만남이었다. 우리들을 가르쳐 주셨던 여러 선생님들, 특히 신지식 선생님, 구창연 선생님, 윤영로 선생님 등 많은 선생님들이 참석하셔서 우리들과 함께 나아가시는 모습에 세월을 실감케 하였다. 재상봉의 밤은 기도로 시작되었고 우리 New York team은 특별순서로 연습해간 "New York의 찬가" (서울의 찬가를 가사 바꿈)와 양골 Song으로 "만남" 을 불렀다.

비록 연습을 더 해오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흥겹게 보낸 즐거운 시간들이었다.

40주년 행사준비 임원들 22명들의 많은 노고가 순서 중에서 엿보였다.

여기 New York에서는 김정인, 이명신 친구들이 준비에 수고를 많이 하였다. 동창회에서 준비한 40주년 주시록 Album속에 40년전의 모습 옆에 현재 모습의 사진이 실려있어서 계속 서로를 대조해 보면서 감회가 깊었다.

다음날 5월 30일에는 개교기념 121주년 행사가 이화여고 노천극장에서 있었다. 어른이 되어서 노천극장에 앉아서 재학생들을 바라보며 40년전의 우리의 모습을 되새겨보며 감상에 젖었다.

그립던 그 시절 햇빛이 짙게 쬐이는 그곳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추위 와 더위도 아랑곳 하지않고 앉아서 들었던 그 많은 감명깊은 설교와 연주들을 그려보며 그것들이 지금의 우리들을 만들어 준 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다. 특히 우리 67년 졸업생중에서 이명신, 김정인과 강정연 3명중 2명 (김정인, 이명신)이 New York에서 가서 "이화를 빛낸 상" (기업 부문)을 수상하였다. 예배와 점심식사 후에 중학교 건물이었던 곳의 박물관을 구경하고 바자회를 구경하였다.

오후 3시에는 67 동문 최아영의 부군인 한덕수 국무 총리의 총리 공관을 90명의 동창들이 방문하였다. 간단한 다과 대접받고 최아영 동문과 일부러 아내의 동창들을 만나러 귀가하신 한덕수 총리와의 사진 촬영을 하고 총리 공관을 구경하였다. 여행후 그때 찍은 사진들을 90명 모두 액자를 만들어 준비해 준 최아영 동문의 세심한 마음에 감사한다.

저녁에는 임원단들이 해외 거주 동창들을 위해 특별히 초대한 한정식 식사가 있었다. 특히 대나무통 속에 넣어 지은 오곡밥과 수많은 반찬들 중 간장 계장은 별미였다. 식사중 하나하나 자기를 소개해 가는 중에, 각자의 40년간 살아온 발자취를 느껴볼수 있었다.



← 2007년 5월 30일 한덕수 총리와 부인 (이화 67년 졸업)과 40주년 재상봉에 모인 친구들과 함께

식사후 몇명은 총무 노정란이 인도하는 "길상사의 초파일 점등" 을 구경 갔다.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종교를 떠나서 그 아름다운 등빛을 높은 곳에서 보니 마치 수놓은 채색의 바다와 같이 넘실 거렸다. 다음날 우리는 2박 3일 일정의 영주, 안동일대에 있는 풍기 소수서원, 영주 부석사, 도산서원, 병산서원, 하회마을, 단양팔경과 고수동굴을 구경하였다.

이번 행사기간중과 여행기간 중에 미리 사전 답사하여 결정한 여러 여행장소들과 또 식사 장소까지 미리 가서 시식해보기까지 하며, 신경을 쓴 임원단들의 그 특별한 정성이 여행하는 곳마다, 식사하는 곳 마다 느껴져서 고마움을 표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여행중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는 여러 친구들이 나이드는 것을 실감케하는 뻘뻘함으로 Y담들을 허물없이 하면서 깔깔대며 즐겁게 지내었다. 어느덧 2박3일의 재미있고 반가웠던 친구들과의 여정이 끝나가자 더 늦기전에 다시 한번 문쳐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50주년까지는 너무 멀으니 45주년에 Cruise을 떠나기로 임원단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그때까지 체력을 잘키워서 45주년 재상봉에는 더욱 건강하고 재미있게 지내자고 서로서로 약속하면서 반갑고 감회가 깊었던 친구들과의 여행은, 재회를 다짐하는 아쉬운 작별인사로 막을 내렸다.

친구들이! 다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실하게 잘살다가 다시 반가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도록 기대하며 기다려 보자꾸나!!

어떤 여인상



김영자 (61)

어떤 여인은
불운에 시달려도
행복을 노래하는
여인이 있고
행운에 폭석 안겨
숨이 차 있어도
슬픔을 독백하는
여인도 있는가 하면

동녘 하늘 노을같은
은은한 미소 입고
오렌지 꽃 향내 풍기며
인생 바람 따라
사복사복 춤추듯 흘러가는
여인도 있습니다.

은퇴와 중국에서의 선교

이정애 (66)

환자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던 남편의 인사말이 “니 하오” 로 바뀌지도 벌써 여러 달이 되었다. 바쁜 뉴욕 생활이었기에 은퇴 후 일년만 쉬었다가 중국 선교를 떠나자는 내 의견에 남편은 일년 쉬면 평생 못 떠난다는 엉터리 이론을 내세웠다. 만약 내가 떠날 준비가 안 됐으면 혼자 갈터이니 걱정 말라며 한 오년 전부터 중국 이곳 저곳을 돌아보며 선교 답사를 하였다.

은퇴하면 그 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하고 보고 싶던 것들도 보면서 즐기리라는 마음이 앞서 있던 내게는, 은퇴 준비의 첫째가 제일 부담이 큰 집 모게지를 다 갚는 일이었다.

자녀가 넷인 우리 가정의 자동차 수도 줄이고 생활비도 줄이며 모게지를 두달치씩 내면서 은퇴 후 정해진 수입 안에서 살 준비를 하였다. 남편과 나의 은퇴 준비 작업은 전혀 다른 방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속에 우리를 인도하셨다.

킨즈한교회에서 있었던 “어! 성경이 읽이지네” 강의를 통해 남편과 함께 가야겠다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남편 밥해주고 그 곳에 함께 있기만해도 선교하는 것이라는 이애실 사모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남편과 함께 가기로 결정을 했다.

사실 그 때부터 내게는 갈등과 걱정이 더 컸었다. 아이들 두고 가지 말라고 만류하시는 친정 아버지, 엄마, 정말 같거나 묻는 자녀들, 주님께 맡긴다고 기도하면서 내가 있어야 결혼시킬 것 같은 나이든 큰 딸 걱정 등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 부부는 중국으로 향했다. 막상 그곳에 가서 느낀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복음을 눈으로 확인하러 온 것 같다는 것이다. 십사년 전부터 수고하고 계신 미국인 선교사, 우리가 섬기게 된 교회, 문화혁명을 겪어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아무 불평없이 묵묵히 모든 어려움을 견뎌낸 분들,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음을 알면서 주님의 능력을 믿고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초신자 간호사들의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았다.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힘들 때마다 여기있는 것이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정리하면 주님이 옆에서 안아 주시고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기적도 체험했다.

중국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있는 공산주의 체제와 가난을 벗고 서구의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갈아 입으려는 자본주의 물질과의 부딪침으로 인한 혼란스러움이 있는 곳이다.

거리에는 한국의 1960년대와 2000년이 함께 공존한다. 버스 요금이 1원(12센트)인데 같은 노선이라도 버스가 새것이면 2원을 받는다. 버스가 새 것이니까 요금이 두배다. 낯선 문화, 낯선 거리에서 자동차 대신 만원 버스타고 출퇴근 하면서 기뻐하는 남편의 모습 속에서 어깨 춤을 추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찬양하던 젊은 시절의 모습이 공존하는 것 같다.

할렐루야 !!

*이정애 동문은 현재 외과 의사이신 남편과 함께 중국에서 의료선교 활동을 하고 있음.

뉴욕지구 Scranton 기금 내신분

07/30/07 현재

Gr	이름	지불 금액	Gr	이름	지불 금액	Gr	이름	지불 금액
27	김영애	\$ 500	56	박천자	\$ 270	65	임익화	\$1,000
46	박소화	\$1,000	57	장정희	\$2,000	66	김홍남	\$ 100
46	한명숙	\$1,000	58	박기춘	\$1,000	66	김희자	\$ 300
49	박이자	\$ 100	58	박경원	\$ 500	66	심재경	\$1,000
51	정주실	\$1,000	58	김정혜	\$ 200	66	이정화	\$1,000
52	강선희	\$ 200	60	연미화 사위	\$5,000	66	이채임	\$2,000
52	이보영	\$2,000	60	이기자	\$ 100	66	최성남	\$2,000
53	(고)남일현	\$ 300	61	김수자	\$9,200	67	이명신	\$2,000
53	김옥석	\$ 500	61	김영자	\$1,000	67	어혜숙	\$ 300
53	정영숙	\$ 500	61	김경자	\$ 500	69	전명혜	\$1,000
53	최은희	\$1,000	61	이경자	\$ 500	69	남광희	\$2,000
54	이애자	\$ 300	61	이귀자	\$2,500	72	김현애	\$ 300
54	이영재	\$ 300	61	인청자	\$ 200	72	남광선	\$1,000
54	오진환	\$ 500	61	조원옥	\$2,000	72	이지용	\$ 200
54	원숙자	\$1,000	61	조정숙	\$ 500	73	김혜선	\$1,000
54	장기숙	\$ 500	63	손종임	\$1,500	74	조혜선	\$ 100
54	최정옥	\$1,000	63	이근자	\$2,000	75	좌은자	\$1,000
55	강홍순	\$1,000	63	이영옥	\$ 100	76	김순희	\$ 500
55	김만옥	\$ 200	63	장현숙	\$ 500	NY합창단	\$ 560	
55	김용희	\$ 300	64	김은희	\$2,000	NY동창회	\$2,100	
56	곽순영	\$1,000	64	김은애	\$1,000			
56	최화자	\$1,000	64	김중자	\$ 300			

동창회와 합창단에 기부금 내신 분

- \$ 1,500 : 김수자 (61)
- \$ 1,000 : 원숙자 (54)
- \$ 800 : 이귀영
(고 남일현 동문 따님)
(합창단 점심 제공)
- \$ 700 : 이영재 (54)
- \$ 500 : 이보영 (52), 배재 동문회
- \$ 300 : 연미화 (61), 조소자 (61)
- \$ 200 : 방금옥 (54)
- \$ 100 : 이양휘 (54)
- * 비행기표 (\$300) : 이채임 (66)
- * 조남천 장로님 [이귀자 (61) 동문 부군]
: 6월 14일 ~ 27일까지의 여행동안
사진 봉사 해주심 감사 드림.

임원진

회 장 이군재('63) (201) 750-0513 © (201) 232-1989

부회장 장현숙('63) (732) 238-5724 © (732) 857-6985

총 무 이정화('66) (516) 484-4305 © (516) 384-6772

전명혜('69) (516) 791-2745 © (516) 850-3526

서 기 김근선('63) (718) 631-9709 © (917) 225-3736

최재숙('63) (609) 924-1612 © (917) 576-1171

회 계 김정인('67) (201) 784-0511 © (201) 394-0025

서자영('63) (201) 567-8235

합창단 김숙자('58) (201) 935-8367 © (201) 723-1524

김현애('72) (917) 570-2709

각 기 대표 연락처

46	한명숙	(201) 445-7161	(c) (201) 519-4605
49	박이자	(212) 595-9866	(c) (917) 656-3501
51	김송옥	(516) 791-9680	
52	이보영	(718) 961-9075	
53	김옥석	(914) 686-7131	
54	이영재	(718) 321-7429	
55	강홍순	(201) 224-6006	(b) (212) 564-1844
56	이금영	(203) 862-0718	(203) 869-5533
57	이선덕	(718) 961-0914	(b) (718) 886-5533
58	김숙자	(201) 935-8367	(c) (201) 723-1524
59	박순자	(212) 689-5134	
60	이정미	(973) 696-0364	
61	박수자	(914) 923-2028	(b) (212) 779-4422
62	강춘환	(732) 747-3226	
63	최계숙	(609) 924-1612	(c) (917) 576-1171
64	김인순	(914) 231-5045	(c) (914) 470-6652
65	김기경	(718) 460-5001	(c) (347) 582-0992
66	김광은	(201) 587-2299	(c) (201) 927-0783
67	김경인	(201) 784-0511	(c) (201) 394-0025
68	김영미	(610) 353-4533	
69	김공주	(201) 460-7581	
70	김정신	(516) 933-8545	(c) (516) 903-3364
71	최광숙	(908) 665-9560	(c) (908) 358-5630
72	이재현	(732) 355-1097	
73	이선희	(732) 632-9509	(c) (732) 423-0463
74	오봉희	(201) 567-4323	(c) (201) 390-0959
75	좌은자	(201) 768-3454	(c) (201) 370-7379
76	신혜진	(516) 869-0769	(c) (917) 443-8798

주소록 변경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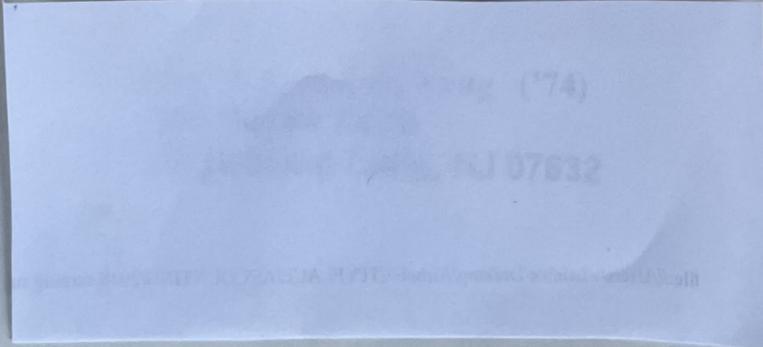
54 장영란 (H) (856) 428-2305 youngwee@comcast.net
 55 박정신 (C) (201) 679-5112
 66 이정화 (C) (516) 384-6772
 69 김관숙 (C) (516) 695-8251
 74 김신애 (Dr. Shin Ae Yu) (H) (347) 804-8885
 35-63 168th Street (C) (914) 592-7400
 Flushing, NY 11358 (docsuri@gmail.com)

74 이혜경 (Hyekyung Song) (H) (848) 459-8806
 110 Sanford Ave.
 Lyndhurst, NJ 07071
 77 박미희 (Micky Mihee Hyun) (H) (516) 827-7355
 33 Russell Park Road (C) (516) 508-1188
 Syosset, NY 11791
 77 박은향 (Elizabeth Eun-Hyang Lee)
 40 Banksville Road (H) (914) 273-1842
 Armonk, NY 10504

90 최희선 (Hee Sun Choi) (H) (646) 509-4670
 17 Henry Street #2F
 Fort Lee, NJ 07024
 93 김남희 (Nam Hee Song) (H) (631) 858-9118
 18 Zoranne Drive E.
 Northport, NY 11731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OF
THE GREATER NEW YORK
 165 Orchard Road, Demarest, NJ 07627



FWD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OF THE GREATER NEW YORK**

동창회 회비 납부자 명단 (2006.7 ~ 2007.6)

07/30/07 현재

- | | |
|--|--|
| 1946 : 박소화, 한명숙 | 1964 : 김영민, 김유순, 김은애, 김증자, 김태옥
서재숙, 이화선 |
| 1949 : 박이자 | 1965 : 송경순 |
| 1950 : 김송옥, 안종영, 정주실 | 1966 : 김광은, 김선애, 김애리, 김원경, 김희자
박경원, 박선희, 박순애, 박혜자, 손 미
삼재경, 원인순, 유기자, 이명순, 이옥순
이영희, 이정화, 이종례, 이채임, 정진영
정화영, 지숙희, 최성남 |
| 1952 : 강선희, 이보영 | 1967 : 김원경, 김정인, 변희봉, 어혜숙, 오선숙
이순덕 |
| 1953 : 김애선, 김옥석, 남일현, 정영숙, 최은희 | 1968 : 소성숙 |
| 1954 : 방금옥, 오진환, 원숙자, 이영재, 이애자
장영완, 최정옥 | 1969 : 김공주, 남광희, 이상은, 임수경, 전명혜
정성혜 |
| 1955 : 강홍순, 김영주, 김용희, 박정신, 전원숙 | 1970 : 이영희, 장수영 |
| 1956 : 곽순영, 김대실, 유병숙, 전월수, 최화자 | 1971 : 김명신, 김양신, 양보영, 양승효
옥성숙, 유경호, 이영숙, 최남숙
최혜연, 최황숙 |
| 1957 : 이선덕, 장정희, 최정숙 | 1972 : 김경숙, 김금수, 김용순, 김현애,
남광선, 유혜경, 이지용, 이재현, 송윤숙 |
| 1958 : 김숙자, 김정혜, 박경원, 박기춘,
안영설, 이금희 | 1973 : 이혜경 |
| 1960 : 곽복향, 박광자, 연미화, 이경자, 이관자
이창미, 조소자 | 1974 : 김신애, 김혜선, 민혜식, 오봉희, 오성혜
유미혜, 이주예, 이혜원, 이화인, 한윤희 |
| 1961 : 김수자, 김영자, 이경자, 이귀자, 정영숙
조원옥, 조정숙, 채영애, 황병남 | 1976 : 김경자, 김순희, 박인순, 한혜진, 홍창희 |
| 1962 : 박기원, 박문순, 여화자, 이민자 | |
| 1963 : 김공자, 김국지, 김근선, 김혜자, 변영숙
손종인, 서자영, 신연자, 이군자, 이문자
이수희, 이영옥, 이완실, 이학엽, 장상화
장현숙, 장희경, 전서영, 정옥경, 최재숙
한철자, 홍경애, 홍성옥 | |

이화 동창 회비 및 9월 11일 PICNIC 회비

(2007. 7.1 ~ 2008. 6. 30)

이름	한글	영어	졸업년도	
주소				
전화	Home	Off	Cel	E-mail
동창회비	\$40	동창회 기금	\$	
Picnic	\$10	차편 필요 ?	Yes	No
Total	\$	Ck Payable to : Ewha Girl's H.S.A.A.		
Mary Scranton 장학기금	\$	Ck Payable to : Ewha Education Foundation		

보내실 곳 :



**EWHA GIRLS' HIGH SCHOOL
ALUMNAE ASSOCIATION OF THE GREATER NEW YORK
165 Orchard Road, Demarest, NJ 07627**

Direction to Picnic Area:

New Jersey Palisades Parkway Exit 1(North or South), Turn left at Palisades Ave. towards Boat Basin, enter the park and follow the sign "ROSS DOCK" area. (201) 768-1360 (Park Information).

232
당일 연락처: 이군자(63) 201-323-1989 장현숙(63) 732-857-6985
이정화(66) 516-384-6772 전명혜(69) 516-791-2745

